

‘15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 더 큰 도약 약속

지난 10일 CGV광주금남로에서 폐막식
권 작품상에 심이안 감독의 ‘빼고’
폐막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차별화
“다채로운 영화 성평등 문화 확산”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6일 ‘카운트 업(Count Up)’이라
는 캐치프레이즈로 광주극장에서 개막한
15회 광주여성영화제는 CGV광주금남로
에서 지난 6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한국
을 비롯해 세계 9개국에서 도착한 50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났다.

이번 영화제에는 3000여명의 관객이
찾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차별 문
제와 장애인 권리 실태를 조망하는 이야
기를 감상했다.

이번 15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새로운
섹션과 더욱 신선해진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객을 반겼다. ‘플래시아시아’ 섹션을 신
설해 아시아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아시
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했고 지역
여성 영화인들의 연결고리가 돼 줄 ‘지역
여성영화교류전’을 마련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제의 차별
화도 이뤄졌다. 영화 ‘캐퍼슨’을 보고 작가
이화경만의 관점이 녹아 있는 해석을 들
어볼 수 있는 ‘이화경의 클로즈업’, 영화·
드라마·OTT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전방
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고은 감독
의 ‘마스터클래스’, 광주 LGBTQ들을 위
한 은밀한 상담소 ‘예지주의 레이디 상담
소’, 영화 ‘담요를 입은 사람’ 관람 후 지
역 생태빵집 ‘빵과장미’와 함께 빵을 만들
어 보는 특별워크숍 등 영화 상영 후 진행
되는 프로그램 이벤트에 많은 관객이 참
석했다.

폐막식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의 꽃이
라고 할 수 있는 ‘권 단편공모’ 시상식이 진



지난 10일 CGV광주금남로 1관에서 열린
‘15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식’에서 관계
자들과 관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됐다. 올해 접수된 456편 중 본선에 진
출한 12편에 대해 각각 권 작품상, 특별
상, 관객상 부문 심사가 이뤄졌다.

본선 심사는 영화 ‘국광교회’의 모현신
감독, 14회 권 작품상 ‘권의 뜨개질’을 연
출한 조한나 감독, 김은지 광주여성민우
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맡았다.

권 작품상은 심이안 감독의 ‘빼고’, 권
특별상은 최승현 감독의 ‘영아의 섬’, 권

관객상은 임지선 감독의 ‘헨젤:두 개의 교
북치마’가 각각 수상했다.

본선심사위원들은 “영화 ‘빼고’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인 하나하나 다시 세어보
자는 의미의 ‘카운트 업(Count Up)’에
도 잘 호응하는 영화”라며 “세상에 남아있
는 딸의 일상 속 발견되는 세상을 떠난 엄
마의 흔적들을 세밀하게 조각하면서 존재
의 무게감과 감정을 끌고 가는 힘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영아의 섬’에 대해서는 “한편의 서정시
같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인물의 성장기
를 긴 설명 없이 관계 설정과 이미지만으
로 섬세히 풀어낸 감독의 내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설명이
다.

‘헨젤:두 개의 교북치마’에 대해서는
“청소년 요실금이 있는 ‘한솔’이란 캐릭터
의 매력에 푹 빠져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평했다.

이번 영화제 폐막작으로는 민아영 감독
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상영됐

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크게 바뀐 게 없
는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23년을 다룬 다
큐멘터리 영화다.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광주여성영화제를 통한
성평등 문화,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목
소리 내는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456편의 영화가 제작
돼 보내졌고 12편만 상영됐다. 456편의
영화를 만들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올해 예산이 줄어 후원 행사를 했는데 많
은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줬다. 먼
곳에서 온 각 지역의 여성영화제 기관들의
연대와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채로운 영화를 선보이
며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영
화라는 매체를 통해 선한 불편함을 발견
하고 이를 계기로 함께 연대하는 세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양복순PD가 최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인 2024 보훈문화제 ‘고려인, 나는大韓國人(대한국인)이다’가 열린 광주 고려인마을 일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고려인 이주 160주년’ 특집 다큐 전국방송

22일 광주카톨릭평화방송
“고려인들의 어려움 조명”

올해 ‘고려인 연해주 이주 16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와 무국적 고
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조명하는 다큐멘
터리가 방송된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특집 다큐멘터리 ‘고
려인 디아스포라 슬픈 아리랑, 우리는 누
구입니까?’를 평화방송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한다고 11일 밝혔다.

1년여의 기획과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
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광주시 광산구 월
곡동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나 그들

의 삶의 애환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또 역
사의 아픔과 함께 웃음이 새겨진 고려인
이주 역사의 배경을 알리고 무국적 고려
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구체
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논란 등 불안한 국
내의 정세 속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
는 고려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
리를 담았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양복순 PD
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고려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박찬 기자

국립남도국악원-대구시립국악단 교류음악회

16일 ‘달구벌의 樂·歌·舞’ 선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대구시립국악단과 교류공연
을 무대에 올린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국악단으로, 우리 전통
음악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한편 국악과
한국무용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하
는 단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달구벌
의 樂·歌·舞(음·가·무)’는 가야금 2중주

‘침향무’, 양금독주 ‘검은 사막’, 민속무용
‘태평무’,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서도
민요 ‘싸름·금다래궁’, 난봉가, 관현악 ‘화
랑’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풍
성한 국악관현악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https://jindo.gugak.go.kr>) 또는 국
립남도국악원장악과(061-540-40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광주 북구·시니어합창단, 오늘 특별 기획공연

‘하나 된 북구·하모니’ 예술의전당

광주 북구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북구합창단과 북
구시니어합창단의 특별 기획공연이 열린
다고 11일 밝혔다.

‘하나 된 북구, 하나 된 하모니’라는 주
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공연은 오준혁 예
술감독의 지휘에 따라 두 합창단의 ‘안녕
하십니까’ 오프닝 합동 무대를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되며 초청 공연도 마련
돼 있다.

1부 무대는 김근형 반주자의 피아노 선
율에 맞춰 ‘Home on the range’, ‘인
생은 70부터야’ 등 4곡의 북구시니
어합창단 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서 2부 무대에서는 조송은 반주자
의 연주와 함께 북구합창단이 ‘가
을 편지’, ‘I will give my love
to you tonight’ 등 4곡의 합창 공
연을 선보인다.

3부 무대는 김민철(모
듬북), 김누리(팀파니)
연주자의 반주 아래 북구

합창단, 북구시니어합창단, 광주남성합
창단의 ‘아! 대한민국 건·곤·감·리’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함승우 남도 판소리 제1호 전
수 장학생과 광주남성합창단의 축하 공연
이 2부와 3부 무대 시작에 앞서 펼쳐질 계
획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행사 당일 현
장에서 입장권을 무료로 선착순 배부받으
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문화예
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합창단과 시니어
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 실력도 보고 가

죽과 함께 낭만 가득한 추억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번 기획공연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합창단(2000년 창단)과 북구
시니어합창단(2008년 창단)은 정기공
연, 기획공연, 각종 경연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음악 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
고 있다.

윤준명 기자

조선대 공공역사연구소, 21일 ‘영암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21일 영암트로트가요센터서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공공역사연구소
는 영암군과 함께 오는 21일 오후 1시 30
분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영암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
제로 2024년 지역사 학술대회를 개최한
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사시대부터 해방 이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암의 역사를 폭
넓게 조망하면서 영암 지역사 연구의 현
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문
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나, 여전히 새롭게
발굴된 사료와 사실도 적지 않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영암왕인문화축제
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마한
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여 마한
연구의 중심지
로 거듭나고 있
다.

학술회의에
서는 △천선행
조선대 교수의
‘영암지역 선사문화의 분포와 전개’ △손
성필 조선대 교수의 ‘고려·조선시대 영암
도갑사의 역사와 위상’ △권수용 한국학
호남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의 ‘영암지역 향
약자료와 그 특징’ △최은진 한국외대 교
수의 ‘일제하 전남 영암 영보정 사건과 지
역사회’ △노영기 조선대 교수의 ‘해방 후
영암지역의 변화와 학살’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조선대 김성한 교수가 좌장을 맡
아 강진표 동북아지식모연구소 소장, 이
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김만호 전남연
구원 책임연구위원, 정명희 국가보훈부
학예연구사, 정찬대 고려대 사회학 박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정선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공공역사
연구소장은 “조선대 공공역사연구소는 지
역에서 시민과 함께 역사를 쓰고 실천하
는 공공역사를 지향하는 연구소로써, 영
암군과 함께 지역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
암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지역사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더
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